

한국인의  
성씨란 무엇인가

## 성씨의 유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한자(漢字)문화가 들어온 이후인 삼국시대부터라 하겠다. 삼국이 성립되기 이전인 원시시대, 고대의 씨족사회 내지 고대 성읍(城邑)국가 시대에는 아직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성이라든지 본관(本貫)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원시시대의 경우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 자기 집단을 이루고 살아왔던 혈연공동체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씨족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하였다. 그리하여 자기의 조상을 숭배하고 동족끼리 그들의 명예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각 씨족들은 다른 씨족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명칭만 있었을 뿐이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1984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의 사서(史書)에 의하면 고구려의 경우 시조 주몽(朱蒙)이 건국하여 국호(國號)를 고구려(高句麗)라 하였기 때문에 고(高)씨라 하고, 백제는 온조(溫祖)가 부여에서 나왔다하여 부여(夫餘)씨, 그리고 신라는 박(朴)·석(昔)·김(金)의 3성 전설이 있다하여 마치 삼국이 성읍국가 시대부터 성을 사용한 듯이 기술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문화를 수용한 이후 즉, 한자를 사용한 뒤에 지어낸 것이다. 7세기 이전에 건립된 금석문의 내용 가운데 인명의 경우 성을 가진 자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를 뒷받침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을까.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구려는 대략 장수왕(長壽王) 때인 413~491년부터 중국으로 보낸 국서(國書)에 고(高)씨, 백제는 근초고왕(斤肖古王) 때인 346~374년부터 여(餘)씨라 하였다가 무왕(武王) 때인 600~640년에 부여씨라 하였다. 한편 신라는 진흥왕(振興王) 때부터 김씨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왕성(王姓) 이외에도 고구려의 경우 해(解)·을(乙)·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

성의사용은 고구려 장수왕 때  
413~491년경으로 추정

예(禮)·송(松)·목(穆)·우(于)·주(舟)·마(馬)·손(孫)·창(倉)  
·동(董)·예(芮)·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등의 10여 성  
이, 백제는 사(沙)·연(燕)·협(荔)·해(解)·진(眞)·목(木)·백  
(百) 등 8대 성과 왕(王)·장(張)·수미(首彌)·고이(古爾)·흑치  
(黑齒) 등 10여 성, 그리고 신라는 박·석·김의 3성과 이(李)·  
최(崔)·정(鄭)·손(孫)·배(裴)·설(薛)·요(姚) 등의 10여 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삼국시대에 있어서 성씨는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즉 다른  
여러 집단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권  
을 향유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종전보다 더욱 자기 씨족 내의  
혈연공동체의 일체감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성을 최초로 가지  
는 집단은 왕실이나 귀족과 같이 최상층의 지배 집단에서 비롯  
되었으며 이후 관료, 양인, 천민의 순서로 점차 보급되어 갔던  
것이다.

성씨의 보급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고구려와 백제의  
성씨는 점차 도태되어 계승되지 못하였고, 단지 신라계의 성씨  
를 중심으로 후삼국 시대부터 한자성이 보급되어 갔다. 신라의  
경우 7세기 초에 신라의 종성(宗姓)인 김씨·박씨가 나오게 되  
며 설씨는 삼국 말기, 이씨는 경덕왕(景德王) 때에, 그리고 정씨  
·손씨·배씨는 통일신라시대에, 마지막으로 최씨는 신라 하대  
에 나타난다. 특히, 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당과 신라 간의 문  
물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계기로 성골(聖骨)이 아닌 진  
골(眞骨)과 6두품(頭品) 계층이 점차 성을 취득하였다. 또한 신  
라가 통일후 9주와 5소경에 왕족이나 귀족을 정책적으로 이주시  
킨 결과, 성을 취득한 중앙의 귀족과 관료들이 수도인 경주뿐만  
이 아닌 지방에까지 거주하게 되면서 성의 사용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후삼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방의 호족(豪族)·촌주(村  
主) 등의 세력이 중앙 권력이 약화된 틈을 타 자칭성(自稱姓)·  
모성(冒姓)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점차 성씨를 취득하게 된다. 그  
들이 이처럼 성씨를 취득하게 된 데에는 그들의 지방사회 자체  
내에서의 성장과 신라의 중앙통치력의 약화라는 정치적인 배경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 고려시대

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들 호족과 촌주들은 당시 사회·정치적 변동을 이끄는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여 그 시기의 지방 군·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계층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독자적으로 중앙 정부와 버금가는 스스로의 관반(官班)을 형성하고 지역주민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삼국 시대 호족출신의 하나였던 왕건(王建)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후삼국을 통일한 뒤 고려를 건국하였다. 그는 건국 후 곧 전국의 군·현 개편작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군현에 각기 출신지와 거주지의 토성이 분정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성씨체계가 확립되었다. 우리나라 성씨의 보급시기를 고려 초기로 잡는 또 하나의 근거로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를 들 수 있다. 그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비로소 성씨제도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사람들은 모두 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 성씨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부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10세 말기 이후인 성종 대(982~997)에 가서야 지방 군·현의 양인층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성씨가 수용되고 있었을 뿐이다.

이처럼 확립되기 시작한 성씨의 체계는 계속하여 분관(分貫), 분파(分派) 등 성의 분화와 함께 발전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왕조의 성립과 아울러 이 체제도 다시 정비되었는데 이것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관찬(官撰)지리지인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성씨조이다. 위의 양 지리지의 각 읍(邑) 성씨조는 인민(人民)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제된 성씨체계의 구체적인 자료로, 이를 통해 당시까지의 성씨를 파악할 수 있다.

성씨가 보급된 이후로도 공·사노비와 향(鄉)·소(所)·부곡(部曲)민, 역민(驛民)·진민(津民) 등의 무성층(無姓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비록 점진적으로 성씨를 취득하긴 하였으나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성씨가 보급되는 데에는 시일이 걸렸다. 그리하여 신분해방과 신분상승이 이루어진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야 성씨를 취득할 수 있었다. 조선전기만 하여도 노비를 위

시한 천민층이 전체 국민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서 무성층도 그만큼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무성층은 16세기 말기에 이르러 신분의 향상 내지는 신분해방을 통하여 성을 취득하게 된 계층으로 격상되었으니, 조선후기 300년의 기간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1894년의 갑오경장(甲午更張)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과 계급이 타파되었으므로 성의 대중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이어 1909년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됨으로써 어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성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갑오경장을 계기로  
신분과 계급타파

## 성씨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성씨제도는 비록 중국 한자성(漢字姓)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것을 수용하고, 정착·분화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복잡하고 고유한 면이 많이 보이는데, 이를 테면 성과 본관은 가문을, 그리고 이름은 자기 가문의 세대를 알려주는 항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 이름을 알면 개인은 물론 그 가문의 세대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인의 성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계(父系)를 본위로 한 칭호이므로 소속된 가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성은 변하지 않는다. 예컨대 호주가 '장'을 성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내는 '박'을 성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며느리도 '홍'이라는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식이다. 이러한 사실은 출가한 후라도 반드시 자기의 혈통을 나타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성불변(姓不變)의 원칙은 우리의 성씨가 가지

한국인의 성은  
부계를 본위로 한다

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즉 외국의 경우 가령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원칙적으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어도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 성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재한다. 게다가 혈연의식이 강하고 성씨에 대한 관념이 지극히 남달라 호적에 반드시 본관을 기재하여 부계의 혈통을 밝히고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에는 혼인도 하지 않으며 이를 법제화까지 시키고 있다.

인구의 50% 이상이  
김·이·박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성의 수에 있어서 270여 성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 역시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극히 적다. 또한 인구의 50%이상이 김·이·박·최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 계통임을 알려 준다.

성씨는 그 분화 과정에서 성만으로는 동족을 구분할 수 없었으므로 본관이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성이 같아도 본관이 다르면 이족(異族)으로 여기고 성과 본이 같아야만 동족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예외도 많다. 성과 본관이 같아도 조상의 연원을 달리하는가 하면, 성과 본관이 다를지라 하더라도 조상이 같을 수도 있다. 이처럼 성과 본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우리나라 성씨체계의 또 다른 특징을 이룬다. 본관도 역시 성과 마찬가지로 분관·분적(分籍)이 늘어남에 따라 처음에는 시조의 출신지나 거주지를 발상지로하여 본관을 정하였으나, 점차 자손이 늘어나고 현달(顯達)하자 봉군지(封君地)·사관지(賜貫地)·벼슬 이름·후손의 일부가 새로 이주하여 정착한 곳의 이름을 따라 새로운 본관지로 변화했던 것이다.

본관제의 기원

본관은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였기에 성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주로 지배층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차 성이 보편화되고, 이에 따라 본관도 널리 보급되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이르면 본관제가 정착하게 된다. 본관제의 기원은 고려 초 호족들이 점차 중앙의 귀족으로 신분상승을 하여 새로운 관료군으로 편입되자 현 거주지가 아닌 조상의 원래의 거주지를 본관으로 칭한 데서 비롯되었다. 곧 새로운 관료군(官僚群)으로 편입된 호족층이 상경입사(上京入仕)하여 개경에 모여 살

게 되자 다른 호족이 가문과 자신의 가문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본관이 하나일 경우 점차 그 가문의 수가 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종전의 본관과는 다른 또 하나의 본관이 생겼으며,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본관의 수가 수십이 넘는 현상을 야기시켰다.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 후손들 가운데 현달한 자가 배출되면 그를 중시조로하여 새로운 본관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또한, 본관은 개변(改變)이 심하였는데 성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신분질서를 중시한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를 통해 집안의 격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족보(族譜) 역시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의 하나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도 이에 실려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 성씨 관계의 제일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처음 조선시대 초기 왕실과 관부(官府)에 의해 처음으로 작성 간행되었다. 그러던 중 명문 가문에 의해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는 바 성종 12년(1451)의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가 최초의 것이다. 이후 16세기 중반인 명종 20년(1565)에는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茄靖譜)』가 간행되면서부터 이를 모범으로하여 명문세족(名門勢族)들이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 17세기 이후 족보가 여러 가문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최초의 족보는 『안동권씨성화보』

## 광명지역의 관적성씨(貴籍姓氏)

광명시는 삼국시대 이래 독자적인 구현으로 내려왔던 금천(衿川)·과천(果川)·안산(安山) 지역을 포괄하였던 시흥군의 일부 지역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광명의 옛지명인 시흥, 즉 금천(衿川)을 본관으로 하는 관적성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금천은 조선시대 이래 서울의 근접지역으로 재경권귀(在京權貴)들의 농장과 별서(別墅)가 많았다. 그리고 왕실·외척·관료

금천을 본관으로 하는  
관적성씨

들의 분묘가 도처에 산재하여 관리들의 출입이 잦았고, 기성관인들의 낙향생활과 타 지역 출신 사족(士族)의 이주도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은 주민들의 신분 구조가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성씨의구성도 매우 다양했다. 금천현은 본래 고구려의 임벌노현(仍伐奴縣)으로 신라 때 곡양(穀壤)으로, 고려시대 금주(衿州)로 고쳤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라 금천현의 성씨를 살펴보면 토성(土姓)이 6개(李·趙·姜·莊·皮·桂), 망성(亡姓)이 2개(尹·秋)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토성 가운데 고려전기에 문벌귀족으로 성장한 것은 강감찬계(姜邯贊系)의 금천 강씨(衿川姜氏)였다. 성씨들 가운데에서 15세기까지 현조나 명조를 확보한 성씨들은 본관을 유지했지만 그렇지 못한 성씨들은 후대까지 계보가 이어지지 못했다.

1930년대 전국 성씨조사에서 나타난 자료에 따라 금천을 본관으로 한 성씨를 보면, 강(姜)·최(崔)·윤(尹)·류(柳)·조(趙)·서(徐)·성(成)·황(黃)·임(林)·노(盧)·어(魚)·유(劉)·육(陸)·장(莊)·피(皮)·계(桂)·추(秋) 등 17개 성씨가 보인다. 이들 금천의 관적성씨 가운데에서 족보를 남긴 것은 금천 강씨뿐이다.

금천 강씨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적성씨로서 금천에서 출자(出自)하여 일찍이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문벌귀족으로 성장하였다. 금천 강씨 문중에서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선조의 세계(世系)와 내·외자손의 계보를 초고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족보를 간행한 것은 순조 3년(1803)의 <계해보>(癸亥譜)가 최초였다. 이때 만든 족보는 77판이었는데 이때부터 백여 년이 지난 1911년 강교석 등이 184판의 <신해보>(辛亥譜)를 2차로 간행하였다.

금천을 본관으로 한 17개 성씨

금천의 관적성씨 중  
강씨만이 족보를 남김